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7호 [루체 제25646호] 주제 106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해장국의 위력을 과시한 금지하고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루어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 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두루 경기풍입니다.》

지상대지상 중장거리전략탄

상원 세 멘드린 합기업소에서

직통적인 만리마속도 창조 대전에서 승리자가 되려는 상원 세 멘드린 합기업소로 통제급의 비상한 일의 풍기를 남겼을 때 높은 크로링 카운팅 실적이나 기록되고 기업소적으로 상반년, 넘간 계획수율들이 편이에 출제되고 있다.

편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으로 내화력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속에 소성계통에 무중유착화 풍성을 확립하게 펼쳐지며 학교 및 조립 전수성과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편합기업소당 위원회에서는 많은 세 멘드를 증산하면서 전망 생산 태도를 더욱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주택적 고로로 정하고 여기에 기업소적으로 회력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소의 모든 일꾼들이 전투원장들에 나가 보통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걸친 문제들을 즉시에 풀어나가는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생산의 품질에는 생산현장에서 방송전차와 기동에 유통전차, 네거에 유통전차의 회선연동이 박력 있고 기택 있게 벌어지고 속보판들은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높이 계속혁신 앞으로

도로에 『화성-12』형시험발사 성공소식에 접한 임민경제 여러 단위의 로동계급이 생산 물적전율을 더욱 힘있게 벌여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고 있다.

속도창조의 기상이 새 차례 나에게고 있다. 광산의 운광장 중기계 2 소대가 넘간 광석상차계 획을 넘어서 수행 화대 이어 중기계 1 소대와 중기계 수리지장 제판작업반, 제판 3 청장 청착기 2 소대가 상반년 계획을 끝이에 완수하였다.

상청 광산 일군들과 광부들의 기세로 드러난다.

생산적으로 침입적 혁신의 기상이 새 차례 나에게는 속에 4월 말까지 1 청 제판 1, 2, 3 소대를 비롯한 8 개 소대가 상반년 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을 펼친데 이어 지난 5월까지 침입적 혁신의 상반년 단위로 일민경제기획이 끝나게 되었다.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서 판전적의의를 가지

순천지구 청년 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에 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일선 순천지구 청년 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만부들은 정초부터 치열한 전투를 벌여 대량 석탄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넘겨 수행하면서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갔다. 그

리하여 편합기업소적으로 상반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단위들이 놀라나고 있다.

2. 8 청동 청년 탄광 5 청 제판 4 중대, 1, 2 청 제판 6 중대, 9 청 군진 3 소대, 김유봉 당원, 헌재, 청년 청년 탄광 3 청 군진 1 소대, 병대 탄광 3 청 제판 3 중대, 8 청 제판 3 중대, 10 청 제판 3 중대, 11 청 제판 3 중대, 12 청 제판 3 중대, 13 청 제판 3 중대, 14 청 제판 3 중대, 15 청 제판 3 중대, 16 청 제판 3 중대, 17 청 제판 3 중대, 18 청 제판 3 중대, 19 청 제판 3 중대, 20 청 제판 3 중대, 21 청 제판 3 중대, 22 청 제판 3 중대, 23 청 제판 3 중대, 24 청 제판 3 중대, 25 청 제판 3 중대, 26 청 제판 3 중대, 27 청 제판 3 중대, 28 청 제판 3 중대, 29 청 제판 3 중대, 30 청 제판 3 중대, 31 청 제판 3 중대, 32 청 제판 3 중대, 33 청 제판 3 중대, 34 청 제판 3 중대, 35 청 제판 3 중대, 36 청 제판 3 중대, 37 청 제판 3 중대, 38 청 제판 3 중대, 39 청 제판 3 중대, 40 청 제판 3 중대, 41 청 제판 3 중대, 42 청 제판 3 중대, 43 청 제판 3 중대, 44 청 제판 3 중대, 45 청 제판 3 중대, 46 청 제판 3 중대, 47 청 제판 3 중대, 48 청 제판 3 중대, 49 청 제판 3 중대, 50 청 제판 3 중대, 51 청 제판 3 중대, 52 청 제판 3 중대, 53 청 제판 3 중대, 54 청 제판 3 중대, 55 청 제판 3 중대, 56 청 제판 3 중대, 57 청 제판 3 중대, 58 청 제판 3 중대, 59 청 제판 3 중대, 60 청 제판 3 중대, 61 청 제판 3 중대, 62 청 제판 3 중대, 63 청 제판 3 중대, 64 청 제판 3 중대, 65 청 제판 3 중대, 66 청 제판 3 중대, 67 청 제판 3 중대, 68 청 제판 3 중대, 69 청 제판 3 중대, 70 청 제판 3 중대, 71 청 제판 3 중대, 72 청 제판 3 중대, 73 청 제판 3 중대, 74 청 제판 3 중대, 75 청 제판 3 중대, 76 청 제판 3 중대, 77 청 제판 3 중대, 78 청 제판 3 중대, 79 청 제판 3 중대, 80 청 제판 3 중대, 81 청 제판 3 중대, 82 청 제판 3 중대, 83 청 제판 3 중대, 84 청 제판 3 중대, 85 청 제판 3 중대, 86 청 제판 3 중대, 87 청 제판 3 중대, 88 청 제판 3 중대, 89 청 제판 3 중대, 90 청 제판 3 중대, 91 청 제판 3 중대, 92 청 제판 3 중대, 93 청 제판 3 중대, 94 청 제판 3 중대, 95 청 제판 3 중대, 96 청 제판 3 중대, 97 청 제판 3 중대, 98 청 제판 3 중대, 99 청 제판 3 중대, 100 청 제판 3 중대, 101 청 제판 3 중대, 102 청 제판 3 중대, 103 청 제판 3 중대, 104 청 제판 3 중대, 105 청 제판 3 중대, 106 청 제판 3 중대, 107 청 제판 3 중대, 108 청 제판 3 중대, 109 청 제판 3 중대, 110 청 제판 3 중대, 111 청 제판 3 중대, 112 청 제판 3 중대, 113 청 제판 3 중대, 114 청 제판 3 중대, 115 청 제판 3 중대, 116 청 제판 3 중대, 117 청 제판 3 중대, 118 청 제판 3 중대, 119 청 제판 3 중대, 120 청 제판 3 중대, 121 청 제판 3 중대, 122 청 제판 3 중대, 123 청 제판 3 중대, 124 청 제판 3 중대, 125 청 제판 3 중대, 126 청 제판 3 중대, 127 청 제판 3 중대, 128 청 제판 3 중대, 129 청 제판 3 중대, 130 청 제판 3 중대, 131 청 제판 3 중대, 132 청 제판 3 중대, 133 청 제판 3 중대, 134 청 제판 3 중대, 135 청 제판 3 중대, 136 청 제판 3 중대, 137 청 제판 3 중대, 138 청 제판 3 중대, 139 청 제판 3 중대, 140 청 제판 3 중대, 141 청 제판 3 중대, 142 청 제판 3 중대, 143 청 제판 3 중대, 144 청 제판 3 중대, 145 청 제판 3 중대, 146 청 제판 3 중대, 147 청 제판 3 중대, 148 청 제판 3 중대, 149 청 제판 3 중대, 150 청 제판 3 중대, 151 청 제판 3 중대, 152 청 제판 3 중대, 153 청 제판 3 중대, 154 청 제판 3 중대, 155 청 제판 3 중대, 156 청 제판 3 중대, 157 청 제판 3 중대, 158 청 제판 3 중대, 159 청 제판 3 중대, 160 청 제판 3 중대, 161 청 제판 3 중대, 162 청 제판 3 중대, 163 청 제판 3 중대, 164 청 제판 3 중대, 165 청 제판 3 중대, 166 청 제판 3 중대, 167 청 제판 3 중대, 168 청 제판 3 중대, 169 청 제판 3 중대, 170 청 제판 3 중대, 171 청 제판 3 중대, 172 청 제판 3 중대, 173 청 제판 3 중대, 174 청 제판 3 중대, 175 청 제판 3 중대, 176 청 제판 3 중대, 177 청 제판 3 중대, 178 청 제판 3 중대, 179 청 제판 3 중대, 180 청 제판 3 중대, 181 청 제판 3 중대, 182 청 제판 3 중대, 183 청 제판 3 중대, 184 청 제판 3 중대, 185 청 제판 3 중대, 186 청 제판 3 중대, 187 청 제판 3 중대, 188 청 제판 3 중대, 189 청 제판 3 중대, 190 청 제판 3 중대, 191 청 제판 3 중대, 192 청 제판 3 중대, 193 청 제판 3 중대, 194 청 제판 3 중대, 195 청 제판 3 중대, 196 청 제판 3 중대, 197 청 제판 3 중대, 198 청 제판 3 중대, 199 청 제판 3 중대, 200 청 제판 3 중대, 201 청 제판 3 중대, 202 청 제판 3 중대, 203 청 제판 3 중대, 204 청 제판 3 중대, 205 청 제판 3 중대, 206 청 제판 3 중대, 207 청 제판 3 중대, 208 청 제판 3 중대, 209 청 제판 3 중대, 210 청 제판 3 중대, 211 청 제판 3 중대, 212 청 제판 3 중대, 213 청 제판 3 중대, 214 청 제판 3 중대, 215 청 제판 3 중대, 216 청 제판 3 중대, 217 청 제판 3 중대, 218 청 제판 3 중대, 219 청 제판 3 중대, 220 청 제판 3 중대, 221 청 제판 3 중대, 222 청 제판 3 중대, 223 청 제판 3 중대, 224 청 제판 3 중대, 225 청 제판 3 중대, 226 청 제판 3 중대, 227 청 제판 3 중대, 228 청 제판 3 중대, 229 청 제판 3 중대, 230 청 제판 3 중대, 231 청 제판 3 중대, 232 청 제판 3 중대, 233 청 제판 3 중대, 234 청 제판 3 중대, 235 청 제판 3 중대, 236 청 제판 3 중대, 237 청 제판 3 중대, 238 청 제판 3 중대, 239 청 제판 3 중대, 240 청 제판 3 중대, 241 청 제판 3 중대, 242 청 제판 3 중대, 243 청 제판 3 중대, 244 청 제판 3 중대, 245 청 제판 3 중대, 246 청 제판 3 중대, 247 청 제판 3 중대, 248 청 제판 3 중대, 249 청 제판 3 중대, 250 청 제판 3 중대, 251 청 제판 3 중대, 252 청 제판 3 중대, 253 청 제판 3 중대, 254 청 제판 3 중대, 255 청 제판 3 중대, 256 청 제판 3 중대, 257 청 제판 3 중대, 258 청 제판 3 중대, 259 청 제판 3 중대, 260 청 제판 3 중대, 261 청 제판 3 중대, 262 청 제판 3 중대, 263 청 제판 3 중대, 264 청 제판 3 중대, 265 청 제판 3 중대, 266 청 제판 3 중대, 267 청 제판 3 중대, 268 청 제판 3 중대, 269 청 제판 3 중대, 270 청 제판 3 중대, 271 청 제판 3 중대, 272 청 제판 3 중대, 273 청 제판 3 중대, 274 청 제판 3 중대, 275 청 제판 3 중대, 276 청 제판 3 중대, 277 청 제판 3 중대, 278 청 제판 3 중대, 279 청 제판 3 중대, 280 청 제판 3 중대, 281 청 제판 3 중대, 282 청 제판 3 중대, 283 청 제판 3 중대, 284 청 제판 3 중대, 285 청 제판 3 중대, 286 청 제판 3 중대, 287 청 제판 3 중대, 288 청 제판 3 중대, 289 청 제판 3 중대, 290 청 제판 3 중대, 291 청 제판 3 중대, 292 청 제판 3 중대, 293 청 제판 3 중대, 294 청 제판 3 중대, 295 청 제판 3 중대, 296 청 제판 3 중대, 297 청 제판 3 중대, 298 청 제판 3 중대, 299 청 제판 3 중대, 300 청 제판 3 중대, 301 청 제판 3 중대, 302 청 제판 3 중대, 303 청 제판 3 중대, 304 청 제판 3 중대, 305 청 제판 3 중대, 306 청 제판 3 중대, 307 청 제판 3 중대, 308 청 제판 3 중대, 309 청 제판 3 중대, 310 청 제판 3 중대, 311 청 제판 3 중대, 312 청 제판 3 중대, 313 청 제판 3 중대, 314 청 제판 3 중대, 315 청 제판 3 중대, 316 청 제판 3 중대, 317 청 제판 3 중대, 318 청 제판 3 중대, 319 청 제판 3 중대, 320 청 제판 3 중대, 321 청 제판 3 중대, 322 청 제판 3 중대, 323 청 제판 3 중대, 324 청 제판 3 중대, 325 청 제판 3 중대, 326 청 제판 3 중대, 327 청 제판 3 중대, 328 청 제판 3 중대, 329 청 제판 3 중대, 330 청 제판 3 중대, 331 청 제판 3 중대, 332 청 제판 3 중대, 333 청 제판 3 중대, 334 청 제판 3 중대, 335 청 제판 3 중대, 336 청 제판 3 중대, 337 청 제판 3 중대, 338 청 제판 3 중대, 339 청 제판 3 중대, 340 청 제판 3 중대, 341 청 제판 3 중대, 342 청 제판 3 중대, 343 청 제판 3 중대, 344 청 제판 3 중대, 345 청 제판 3 중대, 346 청 제판 3 중대, 347 청 제판 3 중대, 348 청 제판 3 중대, 349 청 제판 3 중대, 350 청 제판 3 중대, 351 청 제판 3 중대, 352 청 제판 3 중대, 353 청 제판 3 중대, 354 청 제판 3 중대, 355 청 제판 3 중대, 356 청 제판 3 중대, 357 청 제판 3 중대, 358 청 제판 3 중대, 359 청 제판 3 중대, 360 청 제판 3 중대, 361 청 제판 3 중대, 362 청 제판 3 중대, 363 청 제판 3 중대, 364 청 제판 3 중대, 365 청 제판 3 중대, 366 청 제판 3 중대, 367 청 제판 3 중대, 368 청 제판 3 중대, 369 청 제판 3 중대, 370 청 제판 3 중대, 371 청 제판 3 중대, 372 청 제판 3 중대, 373 청 제판 3 중대, 374 청 제판 3 중대, 375 청 제판 3 중대, 376 청 제판 3 중대, 377 청 제판 3 중대, 378 청 제판 3 중대, 379 청 제판 3 중대, 380 청 제판 3 중대, 381 청 제판 3 중대, 382 청 제판 3 중대, 383 청 제판 3 중대, 384 청 제판 3 중대, 385 청 제판 3 중대, 386 청 제판 3 중대, 387 청 제판 3 중대, 388 청 제판 3 중대, 389 청 제판 3 중대, 390 청 제판 3 중대, 391 청 제판 3 중대, 392 청 제판 3 중대, 393 청 제판 3 중대, 394 청 제판 3 중대, 395 청 제판 3 중대, 396 청 제판 3 중대, 397 청 제판 3 중대, 398 청 제판 3 중대, 399 청 제판 3 중대, 400 청 제판 3 중대, 401 청 제판 3 중대, 402 청 제판 3 중대, 403 청 제판 3 중대, 404 청 제판 3 중대, 405 청 제판 3 중대, 406 청 제판 3 중대, 407 청 제판 3 중대, 408 청 제판 3 중대, 409 청 제판 3 중대, 410 청 제판 3 중대, 411 청 제판 3 중대, 412 청 제판 3 중대, 413 청 제판 3 중대, 414 청 제판 3 중대, 415 청 제판 3 중대, 416 청 제판 3 중대, 417 청 제판 3 중대, 418 청 제판 3 중대, 419 청 제판 3 중대, 420 청 제판 3 중대, 421 청 제판 3 중대, 422 청 제판 3 중대, 423 청 제판 3 중대, 424 청 제판 3 중대, 425 청 제판 3 중대, 426 청 제판 3 중대, 427 청 제판 3 중대, 428 청 제판 3 중대, 429 청 제판 3 중대, 430 청 제판 3 중대, 431 청 제판 3 중대, 432 청 제판 3 중대, 433 청 제판 3 중대, 434 청 제판 3 중대, 435 청 제판 3 중대, 436 청 제판 3 중대, 437 청 제판 3 중대, 438 청 제판 3 중대, 439 청 제판 3 중대, 440 청 제판 3 중대, 441 청 제판 3 중대, 442 청 제판 3 중대, 443 청 제판 3 중대, 444 청 제판 3 중대, 445 청 제판 3 중대, 446 청 제판 3 중대, 447 청 제판 3 중대, 448 청 제판 3 중대, 449 청 제판 3 중대, 450 청 제판 3 중대, 451 청 제판 3 중대, 452 청 제판 3 중대, 453 청 제판

모두다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만리마시대의 선구자가 되자

금별매달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우리 광산은 영웅광산이 아닙니까.』

출장길에 오르는 바쁜길을 올 때 우리와 같은 만났던 대홍청년영웅광산 지배인 황영성삼동부의 말이었다.

비록 그의 말은 소박하고 짧았지만 바로 그속에는 영웅광산으로 내세워온 당시의 믿음을 염원하고 떠나려는 대홍로동계급의 드림없는 의지가 실려있음을 우리는 취재과정에 드겁게 느낄 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희생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어느날 발파의 순간을 기다리는 무학분광산 전진경 김용광선수대원들의 가슴은 흐려져 있었던 것이다. 3월에 이어 또다시 놀이 세운 4월 생활계획수행을 눈앞에 끝 순간이었다.

드디어 오랜만에 밤과 소리가 막장을 헤친 것이다.

소대원들은 활성을 더쳐울었다. 막장에는 철계획을 날던자 한수하에 뒤 철광봉들의 기쁨이 고개를 치웠다.

안전통봉빛에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미리 끌어보면 경장 실현원동부의 눈길이 김용한소대장의 얼굴에 그쳤다.

『소대장들은 활성을 더쳐울었다.』

대 흥 청년 영웅 광산 일군들 파로 동계급

간 어여야 할것 같습니다.』 소대를 앞장에서 이들이 온 김용광선수대원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경장이 하는 말이었다. 그런 권리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듯하지 않게 막장에서 밤마다 근

한해 동안 막장치료를 몇번이고

마다하며 충정의 70일 전진과 200일 전진을 벌였으며 면회

없이 올해에도 전투의 일장에

서 떠나온다는 그는 선군시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실력을 펼쳐보였던 것이다.

그날 또다시 칙암기를 털어갈

는 김용한소대장의 모습에서 광부들은 당시의 믿음을 보답을 따라온

우선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

는가를 다시금 물어보았다.

영웅광산으로 내세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코나는 믿음을

네홍청년영웅광산 광부들의 가

슴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다.

전진경 막장에서 새해전투를 벌여나가면서 지난 1월 어느날 광

산일군은 전진에서 처녀운전공

들의 모습이 그에게는 더없이

돋보였다.

문득 일군의 뇌리에는 넌로보

정나라가 훨씬 지난 고금기 능동

일군은 전진에서 처녀운전공

들이 사용하는 차고마한 소공구

주머니를 보게 되었다.

처녀들의 전진 일봉사가 엿보

이는 소공구들을 보며 『성장 수고하나만』 하고 말하는 그 일

군에 전진운전 광복주동부는

나에게는 놀라운 칭송이다.

가슴을 풀려오는 것 같았다.

『집에 들어가면 영웅광산의

광부생활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 삶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미움들에 반발해 높은 광물증산성과가 더욱되고

있었다. ... 영웅광산의 운명,

광산의 설비가 아닙니까.』

영웅광산의 설비!

그 말을 되뇌이는 일군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임원을 하루빨리 실현하시기 위하여 끌어온 현지지도의 길

을 그려내는 원수님의 역세

제 걸어갈 맹세를 더욱 크게 가

다는 대흉의 동계급이다.

경소장직의 소성공들이 새해 첫 전투의 새한 동음을 울려가

던 지난 1월초였다. 뜻하지 않게 2호소성으로 헤쳐온 부부는 무너져내렸다. 1 200℃까지

올랐던 도란을 식히고 단련하게 다시 냉각시킨 적도 3일이라는 시일을 기록하였다.

10여개의 소성으로 가동하는 조전에서 한가로운 헤엄을 펼쳤다. 그 옆에는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편집속에 진행되었던 새 기술성과 및 청진전시회장 총고보아도 대홍로동계급의 실장속에 깊고 있는 맹세를 잘 알 수 있다. 당시 전시회에 출품된 수십건의 가치있는 상

으로는 대홍청년광산이 영웅

청호를 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

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우후무후하심을 담은 글씨가 적어졌다.

이름난 난관에 주저한다면 어

찌 영웅광산의 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앞장에서 표인으로 서슴없이 들어가는 직장상도 무분당위원장

도 죽로부도 모두의 가슴속에는 그런 의지가 새롭게 물어번졌다.

가슴을 풀려는 원수도 불같은

토로도 없었다. 광산의 운명,

본사기자 신규

지상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그려한 시각도 아니었다. 하지만 영웅광산의 애국념원은 길이 끝을 밟고자 했던 그

경우에 힘을 빼는데, 길거울 때에

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은

강국임원을 하루빨리 실현하시기

위하여 끌어온 현지지도의 길

그들은 대홍청년광산의 원수님

을 그려내는 원수님의 헤엄을

제 걸어갈 맹세를 더욱 크게 가

다는 대홍의 동계급이다.

경소장직의 새한 동음을 울려가

던 지난 1월초였다. 뜻하지 않

게 2호소성으로 헤쳐온 부부는

무너져내렸다. 1 200℃까지

올랐던 도란을 식히고 단련하게

다시 냉각시킨 적도 3일이라는

시일을 기록하였다.

10여개의 소성으로 가동하는

조전에서 한가로운 헤엄을

펼쳤다. 그 옆에는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편집속에 진행되었던 새 기술성과 및 청진전시회장 총고보아도 대홍로동계급의 실장속에 깊고 있는 맹세를 잘 알 수 있다. 당시 전시회에 출품된 수십건의 가치있는 상

으로는 대홍청년광산이 영웅

청호를 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

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우후무후하심을 담은 글씨가 적어졌다.

이름난 난관에 주저한다면 어

찌 영웅광산의 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앞장에서 표인으로 서슴없이

들어가는 직장상도 무분당위원장

도 죽로부도 모두의 가슴속에는 그런 의지가 새롭게 물어번졌다.

가슴을 풀려는 원수도 불같은

토로도 없었다. 광산의 운명,

본사기자 신규

막장에 새겨가는 위훈의 자취

지상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그려한 시각도 아니었다. 하지만 영웅광산의 애국념원은 길이 끝을 밟고자 했던 그

경우에 힘을 빼는데, 길거울 때에

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은

강국임원을 하루빨리 실현하시기

위하여 끌어온 현지지도의 길

그들은 대홍청년광산의 원수님

을 그려내는 원수님의 헤엄을

제 걸어갈 맹세를 더욱 크게 가

다는 대홍의 동계급이다.

경소장직의 새한 동음을 울려가

던 지난 1월초였다. 뜻하지 않

게 2호소성으로 헤쳐온 부부는

무너져내렸다. 1 200℃까지

올랐던 도란을 식히고 단련하게

다시 냉각시킨 적도 3일이라는

시일을 기록하였다.

10여개의 소성으로 가동하는

조전에서 한가로운 헤엄을

펼쳤다. 그 옆에는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편집속에 진행되었던 새 기술성과 및 청진전시회장 총고보아도 대홍로동계급의 실장속에 깊고 있는 맹세를 잘 알 수 있다. 당시 전시회에 출품된 수십건의 가치있는 상

으로는 대홍청년광산이 영웅

청호를 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

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우후무후하심을 담은 글씨가 적어졌다.

이름난 난관에 주저한다면 어

찌 영웅광산의 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앞장에서 표인으로 서슴없이

들어가는 직장상도 무분당위원장

도 죽로부도 모두의 가슴속에는 그런 의지가 새롭게 물어번졌다.

가슴을 풀려는 원수도 불같은

토로도 없었다. 광산의 운명,

본사기자 신규

릉등 탄광

지난해 총정의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를 남긴 저 풍파하고

간계회를 150%로

넘쳐 수령하였던 구장지구

구단원들이

굴진속으로

굴진과

<p

인민을 위한 길에 한평생을 다 바치신 자애로운 어버이

만민의 래양으로 영생하시는 분

경축행사 어려운 나라에서 진행

래양절에 즐음하여 영국, 인도, 기네에서 업적토론회, 독보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 정부수석 고령평도자 김정은同志의 업적을 담은 사진물들로 모셔져 있었다.

또한 대수산 철원원인들의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품을 비롯한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래양절 송의 만민제보』, 『강상대 국의 불보라』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국 신공장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영국 신군정 척연구협회 위원장은 영성봉우리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는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놓으셨고, 인민사람의 정지를 펼쳐지시였다. 그 이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떠나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나가시었으며 병도의 재생문화를 및 나에게 해결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국악 춤단으로 더욱 암울해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조선을 견디지 못한다. 조선의 막

기쁨이며 땅이라고 하시였다. 또한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김일성주석의 인민사람, 후대사람은 정성을 평도자에 의하여 헌정되어 있다.

인디아주 철학 연구원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은 인민을 위한 길에 한평생을 다 바치신 인민의

기쁨이며 땅이라고 하시였다.

기네 국방성 대기록공대, 기로페스총회사의 인사들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숭고한 국제주의의 의회를 지니어 김일성주석께서는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과 세계 사회건설을 풍심답게 국제 도와주시였다.

그 이께서는 만민의 대양으로 영생하신다. 강조하였다.

영국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에 하는 최고 평도자 김정은同志에게 축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수레아이의 신분으로 영생할 것을 소망하는 외국인사들의 반향을 소개하였다.

수레아이의 중앙TV 방송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사진물을 보시고 사

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에게 양으로 걸어 길이 칭송되시는

나라 정치인들까지도 그이의 솔직한 대답에 만복을 금지 못하였다.

수레아이의 사나우신, 중앙파지

오방송은 조국의 부상현영과 인민의 평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애민의 진실적생애에 대한 축별보도를 하였다.

수레아인문 『알 바이스』는

『조선 김일성주석의 한생 일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국적 정치지도자의 위대한 귀감으로 민족의 업화같은 흥보속에 영생하신다.

그 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통하여 비약하는 조선의 혁신과 더불어 주석의 대양의 미소라는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신

문은 강조하였다.

김보자의 아까우신, 국가재

지오방송, 카파파티오방송, 에프에 90, 5방송도 김일성주석을 주제사상을 창시하시며 인류

가 나아갈 길을 밟혀주신 자주 시대의 개척자, 선도자이시고 반제 자주의 기지 높이 세운 자주 회의업을 주도해 나가신 20세기의 혁명활동을 칭송하면서 그 성과를 칭송하고자 한다.

주석의 존함은 국제 사회에 넓리 알리게되었으므로 조선을 적대시하는 나라는 정치인들까지도 그이의 솔직한 대답에 만복을 금지 못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소동이

해마다 성대히 경축하고 있다.

주석의 존함은 국제 사회에 넓리 알리게되었으므로 조선을 적대시하는 나라는 정치인들까지도 그이의 솔직한 대답에 만복을 금지 못하였다.

수레아이의 신분으로 『칼 사우리』, 『미슬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김일성주석의 한생 105회』를 제목으로 글들에서 시대와 역사상에 좋아울리신 커다란 공적으로 하여 대양으로 걸어 길이 칭송되시는

제20회 전국체육대에서 만족마치으로 남양제나고서 있다.

최근년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를 굽诩

시켜보려고 해워입장을 드립없이 중대시켜 왔다.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용기를 자랑하는 미제의 현장리가 솟구쳐오르고 그속에서 만민의 세시대가 팽성하였다. 우리 사회주의 조국강산에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자랑스러운 회복을

이끌어야 했던 것이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제재압박

속에서 해마다 새 거리를 하나씩 일어섰다.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용기를 자랑하는 미제의 현장리가 솟구쳐오르고 그속에서 만민의 세시대가 팽성하였다. 우리 사회주의 조국강산에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자랑스러운 회복을

이끌어야 했던 것이다.

미국은 더럽고 피묻은 손바닥으로 하늘의 대양을 가리워보겠다는 것이 허망한 꿈이었으며 그 후파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최후방의 무덤속에 빠져들면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박 예 경

태양의 미소는 영원하다

신문, 통신, 방송을 특집

태양절에 즐음하여 칭보자,

기네의 신문, 통신, 방

송들이 특집하였다.

김보자신문 『노고트』를 대

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미소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한

면에 기뻐하였다.

김보자의 글은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

하고 만족하였다.

그 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나가시었으며 병도의

제재문화를 및 나에게 해결하시였

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국악 춤단으로 더욱 암울해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조선을

견디지 못한다. 조선의 막

기쁨이며 땅이라고 하시였다.

맨유웨어라는 말자체가 『배상

금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으로서 이 미제는 맨유웨어

한도우조작제제를 냄고들어 한

면에 같은 씨이버공격을 받았다.

영국의 임금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병도의 글을 요구하는 300LSS의 글을 보여주는

통보문을 험하게 듣을 때까지

증명과 함께 글을 읽은 한

면에 같은 씨이버공격을 받았다.

그 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나가시었으며 병도의

제재문화를 및 나에게 해결하시였

다고 말하였다.

그 유럽 경찰기구는 세계적으로

20만대 이상의 컴퓨터들이 씨이

버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로 하여 폐력을 입은 대상

의 대부분은 은행, 보건, 정보통

신 등 분야의 대규모 기업체들과

정부기관들이 이어졌다.

씨이버공격을 받은 컴퓨터들은

모두 펜데믹으로 블리우는 악

성비루스에 감염되었는데 요구하는

원도우조작제제를 사용하는

한국 컴퓨터를 그 미제는 감염되

고 있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랍지역위원회 결성

협회 위원장 야호아 자카리야

아흐마드 카이트이트아시

아흐마드 카이트이트아시